

# “결혼은 고문? ... 그 정도는 아니죠!”

종영 '최고의 이혼' 차태현

연기 하며 결혼에 대해 많은 생각 했어요  
욕심 있다면 시청자가 주는 상 받고 싶어

“에능을 많이 하다 보니 밝은 모습을 보여서 작품을 할 때면 ‘생각보다 조용하네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실제 성격은 크게 살갑지 않은 석무와 비슷해요.”

KBS 2TV 드라마 ‘최고의 이혼’을 통해 기존의 다정다감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에서 ‘현실 남편’으로 변신을 시도한 배우 차태현(42·사진)은 솔직했다.

차태현은 최근 가진 ‘최고의 이혼’ 종영 인터뷰에서 “주변에 결혼자들이 우리 작품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다. 촬영 중에도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잘 보고 있어요’라고 많이 해주시더라”며 “저역시 가족 이야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태현은 기존에 연기해보지 않은 석무 캐릭터에 초반에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다.

“스스로 석무가 100%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본을 보면서도 ‘석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싸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물론 깊은 고민 끝에 차태현은 극이 진행될수록 조석무 그 자체가 됐다. 그 감성과 오랜만에 재주를 살려 드라마 OST(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참여하기도 했다.

첫사랑과 결혼해 다둥이 아빠가 돼 많은 여성 팬을 보유한 차태현은 이번 작품을 통해 결혼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번에 ‘결혼은 고문이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고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쪽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도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결혼 전에 고민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는 이번에 부부로 호흡을 맞춘 배우들에 대해서는 “두나 씨와 비슷한 시기 데뷔를 했지만 한 번도 같이 일한 적이 없어서 이번이 처음 같이 연기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다”며 “연기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다”고 극찬했다.

차태현은 영화·드라마 출연부터 연출까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KBS 2TV ‘해피선데이 1박2일’과 MBC TV ‘라디오스타’ 등 예능에서도 오래 활약 중이다.

그는 ‘라디오스타’에 합류한 데 대해 “1박 2일”을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전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오면 ‘왜 나한테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프



로그로움을 꼭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라디오스타’에서 맨 끝자리는 더 젊은 친구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금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했죠.”

그러하면 올해는 ‘연예대상’을 한 번 기대해보도 좋지 않을까. 기대하는지 묻자 차태현은 “자격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저는 대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에능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흑시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시청자들이 뽑는 프로그램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 팬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 ‘멜론 뮤직 어워드’ 방탄소년단 7관왕 아이콘 ‘올해의 베스트송’



‘월드 스타’로 떠오른 그룹 방탄소년단(사진)이 카카오와 함께 하는 2018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2개 부문 대상을 거머쥐며 7관왕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1일 고척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 4개 부문 가운데 올해의 베스트 앨범상과 올해의 베스트 아티스트 상을 받았으며, 톱 10 상, 랩/힙합 상, 카카오 핫스타 상, 글로벌 아티스트 상, 네티즌 인기상까지 7관왕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은 올해의 베스트 앨범상을 받고 “요즘 같은 스트리밍 시대에 CD라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돈 들여 구매해주시는 게 위대하고 대단한 활동이란 생각이 든다. 저희가 정성 들여 빛을 자식들을 사

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나머지 2개 부문 대상인 올해의 베스트송 상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가, 올해의 베스트 레코드 상은 워너원이 차지했다. 아이콘은 톱10 상과 리더 비아가 받은 송라이터 상, 워너원은 톱10 상과 남자 댄스상도 받아 각각 3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아이콘의 비아는 “아이콘은 작은 창안에 바다를 담으려고 했다. 그러다 보

니 흘러넘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더라. 작은 창안에 차를 잘 우려내서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룹이 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음원 성적과 멜론 회원 투표로 가려진 톱10 상에는 방탄소년단과 워너원, 아이콘 외에도 불뿔간사춘기, 마마무, 에이핑크, 블랙핑크, 비투비, 엑소, 트와이스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SKY캐슬’ 입주한 40대 여우들

염정아·이태란 등 5명 연기호흡 ... 시청률 급상승



청춘스타들을 내세운 트렌디한 드라마로 빠지는가 싶더니, 결국 ‘전공 분야’로 돌아왔다. 매년 좋은 호흡을 자랑한 40대 여배우들과 함께.

JTBC 새 금드극 ‘SKY 캐슬’ (사진)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은 홍보에 ‘하는 줄도 모르게 시작’했지만, 연기력을 자랑하는 출연진과 탄탄한 구성에 힘입어 입소문을 타고 시청률도 첫 회 1%대(닐슨코리아)에서 4회 7%대로 치솟았다.

대학병원 의사나 판·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의 가족 정도는 돼야 입주하는 ‘SKY 캐슬’은 우리 사회 속 ‘그들만의 리그’를 상징한다. 서울대 의대에 아들을 ‘합격시킨’ 엄

마 명주(김정난 분)에게 ‘합격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떠는 엄마들이 그린 장면은 그야말로 블랙코미디였다. 이야기는 그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대 의대에 간 그 아들이 사실은 부모에게 진짜 얼굴을 숨기고 있었고, 그 얼굴을 보고난 엄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SKY 캐슬의 보편적인 물과 정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수임(이태란)은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안긴다. 서진(염정아)은 입시 코디네이터 주영(김서형)의 지령에 따라 자신의 딸과 함께 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한 아이 엄마 수임을 만나기 위해 애쓰지만, 완전히 무시당했다.

JTBC에서 시청률과 화제성을 함께 견인한 드라마 공통점은 ‘40대 여배우

들과의 호흡’이다. 이렇듯 40대 여배우들과 남다른 공감을 자랑한 JTBC는 ‘SKY 캐슬’을 통해 무려 5명의 40대 여배우를 전면에 내세웠다. 주인공 염정아(46)와 이태란(43), 김서형(45), 윤세아(40), 오나라(41)가 그들이다. (아마도) 퇴장한 김정난(47) 역시 40대다.

각각 긴 경력과 안정된 연기력을 지닌 그들이 SKY 캐슬이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서 연기로 치고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는 충분하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 스퀘드
⑨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배드파파(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⑪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최고의 이혼(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배드파파(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특별대담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듣는다
①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2018 삼성화재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1국	1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③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④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재)
⑤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리하는 남자들(재)	15 MBC 플러스특선 단편 오피스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⑥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운명과 분노 (재)
⑦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우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건물록 남도에 살아리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⑧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최중우돌 전국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⑨	00 KBS 뉴스 9			
⑩	00 가요무대	00 뽀뽀걸즈	00 나쁜형사	00 사의 찬미
⑪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	10 안녕하세요	10 창사특집 UHD 다큐멘터리 곰 프로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⑫	30 KBS 뉴스 40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세계 최고를 찾아라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프리카 〈서바이벌 어드벤처 - 제1부 몽골 알타이 산맥〉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굴탕과 굴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3:40 배워서 남줄림(재) 14:30 몬카트(재)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6:15 똑딱맨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7:15 마사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몬카트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컬러 아프리카-다이내믹 세네갈〉 21:30 한국기행 〈통영바다가 맛있는 이유 1부 이 바다에 사는 봄, 소매물도〉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23:55 배워서 남줄림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12월 03일 (음 10월 26일 己巳)

<p>36년생 자연스러운 속에서 복이 깃드는 법이다. 48년생 상당한 결실을 도출하는 형세로다. 60년생 짧은 시간을 할애해도 대처할 수 있다. 72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의외로 얻는 바가 대단히 많을 것이다. 84년생 현재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9, 15</p>	<p>42년생 돌발적인 국세를 이룰지도 모르니 침착해야 한다. 54년생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66년생 실효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일이다. 78년생 포기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90년생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임의적 상황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5, 90</p>
<p>37년생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구도이다. 49년생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61년생 참된 인연과의 만남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보인다. 73년생 기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진면목을 보게 되리라. 85년생 치우쳐 있으니 바로 잡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52, 62</p>	<p>43년생 현실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자. 55년생 지금 잘 관리해 둔다면 향후의 효용성을 높인다. 67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수도 있는 길한 시기이다. 79년생 운로는 좋으니 언행만 주의하면 된다. 91년생 제대로 인식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6, 01</p>
<p>38년생 포괄적인 범위의 설정이 실효적이다. 50년생 마음에 들겠지만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62년생 경우 에 따라서는 생략될 수 있다. 74년생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 하면 그만이다. 86년생 상당한 손실을 치르고서야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6, 73</p>	<p>44년생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56년생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헤아릴 줄 알아야만 한다. 68년생 생변화무쌍할 것이나 현재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80년생 현재 상태로 진행하라. 92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77, 19</p>
<p>39년생 관계가 급속히 냉각 되어질 수도 있다. 51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 될 것이다. 63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75년생 우선순위를 역할에 상위함이 없어야겠다. 87년생 목격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09, 43</p>	<p>45년생 오래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57년생 손재수가 비치니 재판사에 조심 해야겠다. 69년생 언제 따로 시간이 날지는 모르므로 지금 행동함이 가장 나을 것이다. 81년생 임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93년생 완벽하지 않다면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44, 44</p>
<p>40년생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 할 때다. 52년생 핑시에 가져 왔던 의문이 풀리리라. 64년생 아주 기본 일일 생기는 구도이다. 76년생 다채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88년생 모순을 인식했다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81, 96</p>	<p>34년생 당황할 수도 있겠다. 46년생 맹목적이려면 무탈 미하다. 58년생 체계를 인식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무탈 생다. 70년생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 82년생 불편한 상황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0, 63</p>
<p>41년생 당황하지 말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합당하다. 53년생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생기면서 급변전 될 수도 있다. 65년생 돌출하는 성향이 주의해야 한다. 77년생 간발의 차이로 인해서 진입하지 못하리라. 89년생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유효하다. 행운의 숫자 : 45, 08</p>	<p>35년생 오는 손님까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지어다. 47년생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59년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특별하다. 71년생 감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다. 83년생 목표하여 왔던 바를 손에 넣을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1, 4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